

기름과 꿈과 상념

金 乾 洽
(대한석유편회 홍보실장)



세월은 流水라던가.

석유편회는 어느덧 창립 다섯돌을 맞는다. 오는 9월 29일로 석유편회는 삼일로빌딩 23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한지 꼭 5년이 된다. 5년이라면 결코 긴 세월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감회가 큰 것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 그 자체보다는 시간의 연륜속에 아로 새겨진 갖가지 때문은 흔적 때문이 아닐까.

창립사원의 일원으로 이 조직속에서 영욕을 함께 해온 필자로서는 더욱 만감이 교차한다. 돌이켜 보면, 점점 시집살이가 심해지는 상황하에서 이 눈치 저눈치 살피면서 허둥대는 가운데 5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지나친 自嘲일까. 「협회에서 일하려면 시집살이를 각오해야 한다」고 들려주던 어느 선배의 충고도 뒤늦게나마 이해가 될 지경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점점 馴致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제2차 석유위기의 소용돌이와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80년 9월, 정부와 업계의 크나 큰 기대와 축복속에 呱呱의 聲을 올린 석유편회는 그동안 슬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 이 정도의 면모와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한편 대견스럽고 흐뭇한 생각도 든다.

제5 공화국 출범 직후, 정부가 난립돼 있는 각종단체와 조직을 통폐합해 나가던 당시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유독 정유업계의 단체인 석유편회를 새로 발족시켰던 것은 에너지문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협회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을 짐작케 해 준다. 정부가 특히 협회에 기대한 것은 석유문제를 다루는 당국의 공무원들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바뀌지만, 협회는 앞으로 영구히 존속할 것이므로 보다 유능한 인재와 두뇌들을 모아 적어도 협회에서 나오는 의견과 자료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 석유문제에 관한 한 가장 권위있고 신뢰성 있는 기관이 되도록 기대했다고 한다.

이에 못지 않게 회원사들의 기대와 의욕도 매우 컸던 것 같다. 사실 협회 창립 당시 제1차로 14명의 직원을 뽑는데 무려 8백88명의 지원자가 쇄도했던 사실은 협회의 살림을 뒷바라지 해야 하는 회원사로서는 적극적으로 협회다운 협회로 육성해 볼 의욕을 불태우게 했을 것이고, 또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협회 창립에 참여한 직원들 역시 국민경제에 필수불가결한 석유문제를 다루게 된다는데 대해 남다른 자부심과 함께 사명감에 불타기도 했었다.

石油- 우리는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石油의 엄청난 위력을 보았다. 석유는 우선 큰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석유회사이고, 지구 최대의 비즈니스는 석유산업이다. 80년대 들어 석유산업이 다소 위축되기는 했지만, 세계 전체기업의 톱랭킹은 석유 회사가 지키고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배는 유조선이고, 지상최대의 도박은 석유개발이다. 석유와 관계되는 것에는 으레 최고, 최대란 말이 붙는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石油는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회원사들은 신생 석유협회를 美國의 API나 日本의 석유연맹과 같은 수준의 권위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또 정유업계의 상징으로서 석유회관을 건립할 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협회는 그동안 업계와 정부간의 교량적 위치에서 부여된 임무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 정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의 위임사항을 수행하며, 석유문제에 관한 조사업무와 대국민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러나 5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협회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협회를 보는 회원사의 눈이 한층 날카로워졌다는 것이다. 올해 협회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우여곡절이 그 좋은 예가 아닐까 보여진다. 문제의 초점은 과연 협회가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일했는가 하는 점에 집약된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구성원들의 겸허한 자기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협회로서의 특수성과 현실적 제약성을 간과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사실 협회의 역사가 日淺한데서 오는 미숙함과 비능률, 그리고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을 것이며, 또 현실적 제약과 한계 앞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던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입장의 상이에서 오는 인식차이도 크게 작용하지 않나 보여지기도 한다.

일반기업의 1차적인 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영리추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윤 없는 기업은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회는 그 기능면에서 볼 때 계수

로 나타나는 이런 목적보다는 비계수적인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회원사와 협회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영리추구를 위해 시시각각으로 불꽃튀기는 경쟁을 해야하는 일반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협회의 기능과 행태는 느슨하고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 어느 최고경영자는 협회간부들과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그의 협회관을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다.

『나는 협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병폐는 업무의 비능률성, 예산의 낭비, 그리고 관료성이라고 본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협회가 빠져들기 쉬운 병폐를 지적한 것이며, 문제의 핵심을 찌른 말이라고 생각된다. 업계가 협회를 보는 시각도 이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보여진다.

협회는 기능면에서 볼 때, 대개 그 업무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나 효과가 직접적으로 단기간에 회수되거나 계수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고, 선행투자적이거나, 예방투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그 가치나 효과는 무시되기 쉽고, 이에 대한 투자는 불필요한 낭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사실 최근 들어 석유수요가 감퇴되고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험난한 운항을 계속해야 하는 업계로서는 경영합리화와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협회가 업계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문제의식에 더욱 투철하고, 업계 역시 협회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아량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공동체의식은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업계와 협회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이다. 협회는 회원사의 것이며, 회원사를 위한 조직이다.

협회는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회원사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정유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하는 선도자로서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업계 역시 협회를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펴 주는 애정의 꽃을 피울 때, 석유가족의식은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

정직하고 겸허한 직무수행 자세를 확립하자